한국의 그림, 매너에 관하여展

3. 31~7. 21 하이트컬렉션

회화는 캔버스의 표면, 그 피부 위에서 서식한다. 그곳은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지시하거나, 관념적인 공간을 떠올려 주거나 생성한다. 따라서 회화의 표면은 기이한 장소다. 서구 전통회화가 내부로 하염없이 들어가는 구조라면 모더니즘은 평면성이라는 물리적 조건만을 강박적으로 추구했다. 반면 오늘날 회화는 '표면'에 주목하는 것 같다. 그 표면성은 모더니즘과는 조금 달리 안과 밖의 경계에서 간절하게 생을 영위한다고나 할까. 그 두 개의 층위를 동시에 사고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한 표피성, 껍질에 천착하고 있는 것 같다. 새삼 그 표면을 거점 삼아 새로운 회화, 회화에 대한 회화, 아니 회화를 넘어서는 회화(메타회화)의 또 다른 가능성을 회임하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도 보게 된다. 회화의 존재론적 조건인 표면에 대한 독자한 인식과 상상력 및 해석, 그리고 그것을 외화하는 붓질에 의해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화는 부단히 환생하고 새로이 호명된다. 새삼 오늘날 회화는 이제 그 표면에 저마다의 방법론, '매너'로 그림을 기술하고자 한다.

그래서일까. 하이트컬렉션에서 마련한 전시의 제목이 〈한국의 그림-매너에 관하여〉다. 이 전시를 기획한 강석호에 따르면 "현재 한국 미술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화에 관한 이야기, 정확하게는 회화적 현상을 고찰하려는 목적" 아래 전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에 따라 "본인만의 독특한 매너, 즉 회화와의 기술과 형식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간 작가"들이 선별되었다. 김선두 민정기 박대성 유근택 이광호 제여란 홍승혜가 그들이다. 망막 중심적이기보다는 촉각적인 그들 대부분의 그림은 작가의 몸이 느끼는 사물의 피부 질감, 그 감각을 붓질을 통해 온전히 전달하려는 데 있어 보인다. 촉각적인 회화!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한국의 그림'이란 문구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동시대 한국작가들의 회화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것이 결국 한국적인 그림의 단초를 잡아 나가는 시도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그동안 한국적인 그림이 대부분 전통적인 소재나 특정 색채, 혹은 정신성 등으로 논의되는 것과는 다른 선상에서의 질문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하는 한국성은 거창하고 관념적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작가들이 그림을 대하는 태도나 특정한 회화적 방법론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성격에서 찾아 보려는 것 같다. 결국 그림은 주어진 매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매체를 작가들이 어떻게 대하고 점유해 나가며 해석하느냐라는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이 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그간 다소 폄하되거나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묻어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미술계에는 저마다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방법론들이 없는 게 아니다. 정작 아쉬운 것은 미술에 대한 개별적인 사유가 부족하다는 점이고 그 사유에 따른 방법론의 모색이나 창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최근 한국미술은 일종의 공예이고 인테리어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작가들마다 회화를 대하는 자신만의 사유, 그리고 그에 기반해 자기 식으로 그림을 뜯어 먹는 방법론, 매너에 대한 독자성이 요구된다. 그만의 품성, 사유, 몸놀림과 재료 해석과 고도의 연마가 물씬거리는 그림 말이다. | 박영택 · 경기대교수, 미술평론가